

남양공업(주)



개별형

매 출 액 : 1,936억원 | 설립년도 : 1969년 5월 | 종업원 수 : 606명 | 주생산품 : 자동차용 제동부품 및 조향 부품 |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0번지

CASE

02 개별형 PMS 우수사례

2015년 매출액
5,000억원 달성

PMS 최초 인증심사에서 'Level 5'로 평가

남양공업(주)은 2007년 PMS 최초 인증 심사결과 표준시스템 구축단계인 'Level 5'로 평가받았다. 우선 비전 및 중장기 계획을 재정비 한 후 비전과 성과목표에 연계하여 KPI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렬(Alignment)하고 통합(Integration)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분석되었다.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목표를 전개하고 실행하는 종합적인 생산성 혁신 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또한, 현재 6시그마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Belt Rate 59%의 전사적인 혁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경영혁신활동 재설계도 실행해야 할 부문이었다.

교육 및 혁신 OJT 지원하에 전사적인 생산성 혁신활동 추진

PMS 최초인증 심사 후 남양공업(주) 혁신 담당자들은 심사에 참여한 인증 심사원들과 함께 'Level 6'로 도약하기 위하여 제시된 생산성향상과제를 분석하고, 실행할 세부 과제 및 일정을 계획하였다. **우선적으로 생산성지표 설정 및 전략 수립 부문에 있어 OJT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남양공업(주)의 MES 생산 지표 Logic 분해를 통해 생산성지표 Logic을 마련하고, CT를 결정한 후, 지표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6개월간의 혁신OJT를 통해 구축하였다. 국내 생산현장 뿐만 아니라, 중국에 위치한 공장에 대해서도 현장진단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추진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혁신 추진을 위해 다음단계로 임직원 실무 교육을 실행**했다. 직급별, 직군별로 교육 그룹을 구성하고 각 그룹별 수준에 맞는 혁신리더, 마스터, 주니어, 시니어 교육과정을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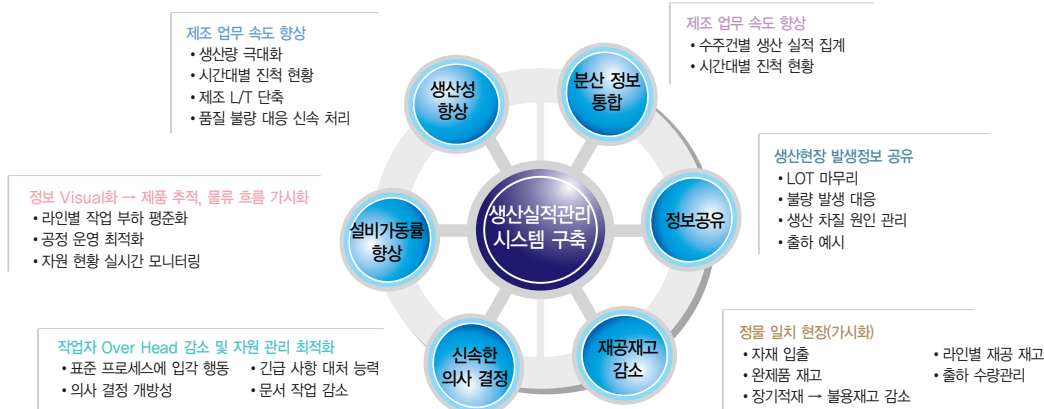
재무 및 주요 성과지표에서 우수한 향상 결과 실현

PMS OJT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한 후, 2009년 사후 인증심사에서 'Level 6'로 평가 받았다. 생산부문에 MES 시스템을 통한 생산관리가 정착되어가고 있고, 현장에서 바로 문제점을 가시화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를 지도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제조업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Level 7'을 목표로 협력사와 함께 생산성향상 활동 지속 추진

남양공업(주)은 현재 'Level 6'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Global 기업 수준인 'Level 7' 단계로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비전전략과 KPI 정립 및 목표관리에 대한 세부 분석 후 개선 ▲ 모든 부문 및 프로세스의 IT 관리화 ▲ 신제품의 Time to Market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사후인증심사에서 제시된 3대 핵심 추진과제를 **2010년 집중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협력사들의 생산성 향상이 곧 남양공업(주)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까지의 PMS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협력업체에도 PMS를 통한 생산성향상활동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생산실적관리시스템 구축



●●● PMS인증 참여 소감

남양공업(주) 대표이사 **홍성종**

2007년 처음으로 PMS인증심사를 받았으며, 인증심사를 통해 우리회사가 인식하지 못한 숨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었다. 또한 선진 기업의 우수사례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어, 이를 2008년도에 중점 전략 과제로 추진한 결과 경영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과 업무 효율 30%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효과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인 혁신문화 정착 및 노사관계의 안정화라는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를 통해 직원들의 자신감 및 앞으로의 기업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 됩니다